

보도자료

2022. 2. 14.



양형위원회

담당자

운영지원단장 송영복
(☎ 031-920-5601)

양형위원회 제13차 자문위원 회의 개최

- 아동인권 관련 시민단체 대표 / 편집인, 법조팀장 등 언론계 인사 / 아동복지 전공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 학계 인사 등 9인의 자문위원 참석
- 지난 1. 24. 양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하여 폭넓은 자문의견 제시

□ 제13차 자문위원 회의

- 일시 : 2022. 2. 14. 14:00 - 16:00
- 장소 : 대법원 1601호 회의실
- 주요 자문 의견

1. 아동학대살해 범죄의 유형 분류 방안

- 아동학대살해는 고의가 있는 '살인'범죄이므로 살인범죄 양형기준에서 정하는 것이 체계적이라는 의견, 아동 및 아동학대범죄의 특수성을 담을 수 있는 체포·감금·유기·학대범죄 양형기준에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 등 다양한 의견 제시

2. 양형인자의 정의규정 적정성

가. '참작할 만한 범행동기'

- '단순 훈육, 교육 등 목적 제외 조항'은 훈육 또는 교육 등의 목적으로 감경하여서는 안 된다는 주의적 의미에서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, 위 조항이 포함됨으로써 마치 진정한 훈육, 교육의 목적으로 범행에 이른 경우는 '참작할 만한 범행동기'에 해당되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삭제함이 타당하다는 의견 등 다양한 의견 제시

나. '진지한 반성'

- '진지한 반성'은 함부로 인정할 경우 법원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정의규정 최초 설정에 대체로 찬성하는 자문의견 제시

3. 집행유예 참작사유로서 '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' 존치 여부

- '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'은 아동학대 피해자가 풀려나 재범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해 왔다는 측면에서 삭제함이 타당하다는 의견 제시

4. 기타

- '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'를 가중인자로 반영하는 것은 타당하고, 이것이 실무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의견 등 제시

② 향후 일정

- 2022. 3. : 제115차 양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아동학대범죄 수정 양형 기준 최종 의결
 - 자문 의견은 양형위원회에 보고되어 논의 예정

③ 참고 사항

[자문위원 구성]

양형위원회 자문위원은 2022. 2. 14. 현재 아래와 같이 14인(명단 아래 참조)으로 구성되어 있음

- 박근양 한국여성의전화 공동대표, 이경은 국경너머인권 대표(이상 시민사회단체 인사)
- 이경원 국민일보 법조팀장, 김균미 서울신문 논설위원실 대기자, 김주하 MBN 특임이사 겸 앵커(이상 언론계 인사)
- 안성훈 한국형사·법무정책연구원 법무·사법개혁연구실장(이상 공공기관 인사)
- 고훈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, 백범석 경희대학교 국제대학 교

수(유엔인권이사회 자문위원), **양현아**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, **김정환**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, **김기현**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, **석인선**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, **이숙진** 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(이상 학계 인사)

- **장현정** 법무법인 예울 대표변호사(한국여성변호사회 청년부회장, 이상 법조계 인사)

[자문위원 구성의 특징]

■ 자문위원의 직역 및 전공 다양화

- 종래 3개 직역(학계, 언론계, 시민사회단체)에 그쳤던 자문위원 직역을 5개 직역(공공기관, 법조계 추가)으로 확대하여 구성
- 특히, 제8기 양형위원회가 추진할 아동학대범죄,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자 아동, 청소년 복지 및 아동학대 전문가인 **김기현**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, 젠더법학 권위자인 **양현아**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, 여성폭력 생존자 지원 단체 대표인 **박근양** 한국여성의전화 공동대표 등을 2021년 신입 자문위원으로 위촉
- 아울러 인권·소수자 보호 가치를 더욱 함양하기 위하여 유엔인권이사회 자문위원인 국제법 전문가 **백범석** 경희대학교 국제대학 교수, 국제입양인 인권 보호단체 대표인 **이정은** 국경너머인권 대표를 2021년 신입 자문위원으로 위촉

■ 자문위원의 성별 및 세대 간 균형 도모

- 여성 자문위원 수를 9명으로 확대함
 - ☞ 다양한 젠더 이슈에 대하여 보다 실질적인 자문 의견을 수렴
- 종래 50대 이상 연령에서만 자문위원단을 구성하였던 것에서 벗어나, 3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할 수 있도록 세대 간 균형 도모
 - ☞ 청년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**이경원** 국민일보 법조팀장, **장현정** 법무법인 예울 대표변호사(한국여성변호사회 청년부회장)를 2021년 신

임 자문위원으로 위촉

■ **더 폭 넓고, 더 깊이 있는 자문의견 청취**

- 언론계 종사자인 **김주하** MBN 특임이사 겸 앵커, **이경원** 국민일보 법조팀장, **김균미** 서울신문 논설위원실 대기자의 자문 의견을 통하여 양형에 관한 국민의 목소리가 보다 생생하게 전달
- 형사 분야 법학 박사이자 양형 관련 전문가인 **안성훈** 한국형사·법무정책연구원 법무·사법개혁연구실장, **김정환**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자문을 통하여, 이론적 깊이 있는 의견 수렴
- 통계 및 법경제학 전문가인 **고학수**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, 헌법재판연구원장을 역임한 헌법 전문가 **석인선**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, 여성가족부 차관을 역임한 **이숙진** 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자문을 통하여, 여러 법 영역을 아우르는 자문의견 청취

[자문위원 명단]

분 야	성 명	경 력
학 계	이 숙 진	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
	백 범 석	경희대학교 국제대학 교수
	양 현 아	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
	김 정 환	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
	김 기 현	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
	고 학 수	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
	석 인 선	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
언론계	이 경 원	국민일보 법조팀장
	김 균 미	서울신문 대기자
	김 주 하	MBN 특임이사, 앵커
시민 사회단체	박 근 양	한국여성의전화 공동대표
	이 경 은	국경너머인권 대표
공공기관	안 성 훈	한국형사·법무정책연구원 법무·사법개혁연구실장
법조계	장 현 정	한국여성변호사회 청년부회장 법무법인 예을 대표변호사